

TMD환자, 내가 볼까 의뢰할까?

송 윤 현 / 아림치과병원

턱관절장애는 안면부에 나타나는 치과의사들이 흔하게 접하는 비치성질환이다. 질환의 특성상 다양한 증상과 복잡한 병태생리를 가지고 감별진단 해야 하는 질환이 많아 정확한 임상적 지식을 가지고 근거중심치의학에 따라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사들이 턱관절장애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를 치과의사 역할에 대한 경직된 사고, 실질적인 과학적 정보의 부족, 질환에 대한 본질과 치료에 대한 교육의 결여, 다인성질환과 관련된 정신사회학적 요소를 다루는 한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인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 다양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환자와 치과의사, 일반의사나 보건관련 전문인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턱관절장애에 대한 것은 의료기술의 연마 및 습득보다는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지식의 정립이 양질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의 인식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턱관절장애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질환의 이해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력 및 경력

-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및 치의학박사, 구강내과전문의
- * 단국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외래교수
-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부회장
- *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회장
- * 대한치과수면학회 감사
- * 현, 아림치과병원 병원장 (턱관절.악안면통증센터)